

'완도의 딸' 이소미 짜릿한 역전 우승

KLPGA 휴엔케어 여자오픈 우승 ... 42번째 도전만에 생애 첫승 완도 오래된 연습장과 백사장에서 샷 같고 닦은 '최경주 키즈' 최종라운드서 뒤집으며 한달전 영암에서 아쉬운 역전패 설욕

완도 출신 이소미(21)가 최혜진(21)의 시즌 첫 승을 저지하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이소미는 25일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 클럽 카일 필립스 코스(파72·642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이소미는 김보아(25)를 1타 차로 제치고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1억4400만원이다.

2017년 입회한 이소미는 42번째로 참가한 KLPGA 정규 투어 대회에서 첫 승을 올렸다.

이소미는 지난달 같은 코스에서 열린 팬텀 클래식에서 1·2라운드 선두를 달리다가 막판 부진으로 우승을 놓쳤으나, 한 달 뒤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설욕에 성공했다.

이소미는 단독 선두였던 최혜진에게 1타 뒤진 단독 2위로 3라운드를 출발했지만, 최혜진이 타수를 줄이지 못한 사이 공격적으로 버디를 잡아내며 정상 자리를 꿰찼다.

이소미는 3번홀(파4)에서 첫 버디를 잡고 8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의 발판을 놓았다.

12번홀(파4) 버디를 13번홀(파4) 보기로 맞바꿨지만, 14번홀(파3) 버디로 다시 만회했다.

18번홀(파4)에서는 버디 퍼트를 놓친 뒤 만드시 파 퍼트에 성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김보아가 1타 차로 추격하고 있어 보기를 적어내면 연장전으로 끌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소미는 강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파 퍼트를 넣으며 생애 첫 우승의 순간을 만끽했다.

경기 후 이소미는 "바람을 이기기보다는 태우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핀에 붙이려고 했다"며 "몇 년간 우승이 없어서 많이 뒤쳐졌나 생각했는데 우승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대회장 인근인 고향 완도에서 지켜봐 주셨던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소미는 최경주와 같은 완도 화흥초등학교를 나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최경주의 활약으로 완도에 골프 아카데미가 유행했고, 이소미도 화흥초골프부에 들어가 꿈을 키웠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최경주를 직접 만나 그립 쥐는 법과 팔뚝을 치는 마음가짐을 배우기도 했다.

완도는 골프를 연습하기에 환경이 다소 열악했으나, 이소미는 오래된 연습장과 백사장에서 샷 같고 닦으며 꾸준히 실력을 키웠다.

한편, 이 대회는 4라운드 72홀 대회지만, 지난 23일 대회가 강풍으로 취소된 바람에 3라운드 54홀 대회로 축소됐다.

2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던 최혜진은 이날 이른바 72타에 그쳐 최종합계 6언더파 210타로 이다연(23), 유해란(19)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우승, 이 맛이야 25일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 카일필립스코스(파72·642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이소미가 18번 홀에서 우승을 확정 지으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늦깎이 데뷔 35세 이원준 최고령 신인왕 도전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 우승

이원준(35·호주)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오픈(총상금 5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이원준은 25일 제주시 타미우스 골프 앤 빌리지 우즈-레이크 코스(파72·698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이원준은 김승혁(34)을 3타 차로 제치고 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지난해 6월 KPGA 선수권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투어 대회 정상에 오른 이원준은 이번 우승으로 신인상 포인트 900점을 추가, 신인상 부문 단독

1위가 됐다.

KPGA 코리아 투어 역대 신인왕 가운데 최고령 기록은 2000년 석종률로 당시 나이 31세였다.

이 대회 전까지 신인상 부문 1, 2위였던 김성현(22), 김주형(18)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올해 남은 대회가 11월 5일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하나여서 그 대회 결과에 따라 올해 신인상 수상자가 정해진다. 김성현이 최종전에서 우승해야 '역전 신인왕'을 바라볼 수 있다.

이원준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올해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은 그가 2006년 프로 전향 후 2008년 미국프로골프(PGA) 2부 투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등에서 활약하느라 국내 투어에서는 데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 with 타미우스 CC FR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원준이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육상팀 전국 최강 입증

전국시·도대학육상대회 김국영·강다슬 남녀 100m 석권 등 금 6·은 2·동 1...메달 9개 수확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 최강실력을 선보였다.

광주시청은 지난 19-23일 경북 예천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1회 전국시·도대학육상경기대회 겸 2020 예천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대회에서 김국영(29)과 강다슬(28)은 남녀 100m 동반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대회 2관왕이 됐다.

광주시청이 100m 동반우승을 차지한 것은 팀 창단 이래 처음이다. 김국영은 10초31, 강다슬은 11초75의 기록으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김국영과 강다슬은 각각 400m계주, 200m에서 금메달 한 개씩을 보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남자 400m계주에서는 팀 선배의 마지막 경기에 금메달을 안긴 김국영의 폭발적인 스피드가 주목 받았다.

계주에는 여호수아(33), 김민균(13), 송만석(37), 김국영이 나섰다. 송만석의 은퇴 경기 소식에 김국영이 출전을 자청했고, 계주 마지막 주자로 나서 역전레이스를 펼치며 1위를 했다. 김국영은 부상 우려에 200m 경기는 나서지 않았다.

강다슬은 여자 200m에서 24초47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부상으로 고전했던 강다

슬은 이번 대회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그는 내년에 100m, 200m에서 한국신기록에 도전한다.

한정미(24)도 여자 400m(56초96)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여호수아(33)는 남자 200m(21초56), 배찬미(29)는 여자 멀리뛰기(5m91)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멀리뛰기에 출전한 김덕현(7m10)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마지막날에는 이준(29)·최민석(26)·장지웅(28)·여호수아가 1600m계주 금메달을 따내 '유종의 미'를 거뒀다. 광주시청은 3분14초02를 기록, 국군체육부대(3분14초06), 과천시청(3분16초56)을 제쳤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역도·보디빌딩 전국대회 무더기 메달

광주시는 "역도, 보디빌딩 등 소속 직강운동경기부가 최근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한국 역도 간판 전대운과 안시성은 지난 9월 제

92회 남자, 제34회 여자 전국역도선수권대회, 이달 문국 서상전배대회에서 각각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국 대회에서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 등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

하며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 16일부터 3일간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스포츠 미즈&미스터코리아 보디빌딩대회'에서 황진욱, 오지광, 류제형은 체급별 금메달을 휩쓸었다. 황진욱은 대회 최고상인 미스터코리아 대상을 차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싱단 재창단 기여 임택 동구청장에 감사패

한국실업복싱협회 전달

임택(사진 왼쪽) 광주 동구청장이 최근 한국실업복싱협회(회장 김영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실업복싱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에도 동구 복싱선수단 재창단 등 지역 생활체육진흥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임 청장의 노고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옛 동구 복싱선수단은 1990년 창단됐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1996년 해체됐다.

임 청장은 지난 1월 동구복싱단 재창단을 추진했다. 우리 지역 복싱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동구 복싱선수단은 11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앞두고 맹훈련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임 청장은 "우리 동구 복싱선수단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 온 만큼 주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재 기자 yjyou@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삼진그룹 영어토박안
2관	삼진그룹 영어토박안
3관	담보
4관	삼진그룹 영어토박안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안, 언힌지도
6관	미스터트롯: 더 무비, 담보
9관	소리가 없어
7관 씨네카를	담보, 에브리타임 아이 다이
8관 씨네카를	소리가 없어, 태양의 소녀들, 종이꽃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상자투의 길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아집시'상자투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창문넘어 100세 노인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창문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